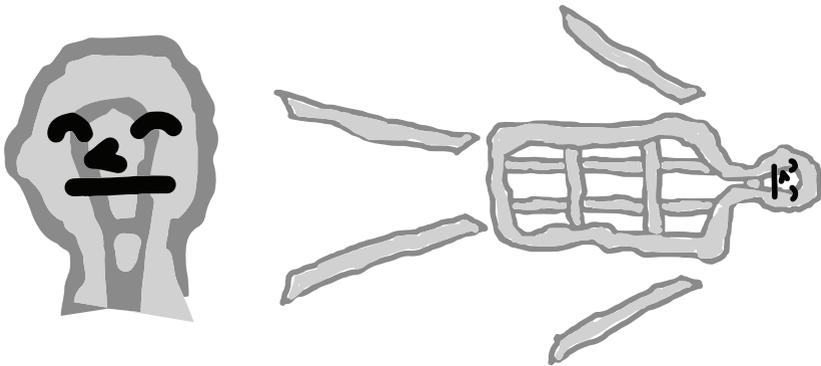


GRE: 프레임 인간을 위한 지지체 패션 (컨버터: 미술비평가 황재민)

지호인

「Moberm(모범잡화)」은 ‘서울’이라는 지역을 활동 범위로 삼아 ‘지속 가능성’이란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작한 협업형 프로젝트였다. 구체적으로는 스스로를 항상 페인터라 공표하는 내가 어깨너머로 본 패션 브랜드 실장들의 ‘브랜딩’을 모방하여 어느 지점까지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즉 일종의 ‘브랜딩 셀프 임계점 테스트’라 칭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Moberm」의 임계점 너머엔? 아마 잡화를 — 피로감이 깃든 단어 ‘굿즈’ 대신 — 하나의 매체로 승격시킨 것처럼 일시적으로 꾸며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이미 있다고? 아마 다를걸.



각설하고, 제목에 기술한 「GRE」는 회화 제작의 방법론을 의류 프린팅의 방법론으로 치환해 비트는 모종의 형식과 태도가 잡화로 물화한 「Moberm」의 세컨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017년의 나는 문자를 점·선·면의 면으로 치환해 서사성이 가진 위계를 아래로 역전시킨다는 회화적 시도와 실험에 빠져있었다. 2018년에게 작별인사를 건네는 시점에서 그 기억을 일면 상기시켜, 즉 말장난들을 — 그렇지만 나름의 엄격한 Rules'를 가지고 — 이용해 「Moberm」의 세컨드 브랜드명을 만들었던 것을 언급하며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1.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원앤제이 갤러리에서 열린 회화 기획의 회화 단체인 제목이기도 하다. "...전시 제목 '룰즈(rules)'는 참여 작가 모두가 자신이 온전히 '통치(rules)'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규칙(rules)'을 고수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붙었다."

먼저 painting, reproduction — 이번 「GRE」의 컨버터가 원본의 소유자가 아니기에, replica 대신 reproduction 을 이용 — 두 개의 단어를 준비한다. 그리고 painting 과 reproduction을 합쳐 paintingreproduction을 만든다. 거기서 접경지점을 회를 뜨듯 살살 떼내 paintin gre production으로 분리하고, 떼낸 자국과 함께 접경-변환의 그라데이션을 내비치는 gre만 남겨놓는다.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이 완료되었다. 여기에서 문자들은 면으로 'Expand'²⁾ 되었으므로 독해하는 것은 무용하다. 「GRE」를 발음하는 방법은 '지알이' 혹은 '거'가 된다. 근사한 이름이 생겼으니 이제 프레임 인간의 지지체 패션을 구현하고 제안하는 단계로 나아가도록 한다.

일전에 「GRE」의 열개를 구성하며 오래된 회화 작품, 혹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을 복각-변환해줄 사람을 물색했다. 「GRE」가 가지고 있는 지지체 패션 제작의 형식 자체가 회화 제작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치환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페인터를 떠올렸으나, 이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나?”란 답을 도출하게 되었다. 페인터를 제외한 인물 중 「GRE」가 제안하는 모종의 형식 안에서 다양한 전개 가능성의 서막을 끌어줄 인물로 회화 매체를 주로 비평하는 미술비평가 황재민을 떠올리게 되었다. 황재민에게 「GRE」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을 의뢰하게 된 것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GRE」를 글이라는 매체로 소개할 수 있게 된 여건도 크게 작용했다. 앞서 언급한 문자 실험처럼 위계나 순서, 역할을 뒤트는 것이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비평가가 붓을 들고 그림을 제작하고, 되려 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글로 정리하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기 때문이었달까. 아무튼 「Moberm」은 비평가 황재민에게 「GRE」의 첫 번째 컨버터가 되어줄 것을 제안했고,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몇 가지 형식적 규약을 나열해 알리고, 그에 맞는 4~5개의 작품 구성을 요청했다. 그 규약이란 다음과 같다.

1. 컨버터의 '복각-변환' 수행은 「Moberm」 측과 대면하며 진행한다.
2. 복각-변환의 수단인 '붓질'은 직접 수행하게 될 것이며, CMYK가 고르게 섞인 검은색에 근접한 전사용 잉크를 사용하게 된다.
3. 지지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티셔츠는 17수 반팔 면 티셔츠, 색상은 흰색을 기본으로 하나 다른 색도 선택할 수 있다.
4. 복각-변환의 매개체가 되는 회화작품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특정한 이유가 없는 한 비교적 최근작은 피하도록 한다.

준비를 마친 나와 컨버터 황재민은 2018년 9월의 어느 날 서울의 한 장소에서 만나 변환을 시작했다. 황재민이 컨버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Converting-01'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는 복각-변환의 대상이 되는 회화작품을 「GRE」의 문법을 이용해 변환할 수 있는 촉매로 만들기 위한 단계이며, 복각-변환의 수단으로 전통적 회화 제작의 방법론에 가장 근접한 '붓질'이라는 행위를 이용한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복각-변환할 회화작품을 참고할 스크린 혹은 종이, 전사용 특수 용지 — 일반적으로 승화전사는 폴리에스테르 원단에 사용하기 적합한 기법이나 「GRE」가 티셔츠를 지지체로 이용하기에 면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 용지는 필수 불가결한 재료이다 — 와 전사용 잉크 그리고 붓. 황재민은 붓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낯선 감각으로 몇 번의 연습 후 본격적인 'Converting-01'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회화작품을 촉매로 만드는 'Converting-01'의 과정을 이행한 뒤, 다음 단계인 'Converting-02'는 나의 작업실에서 진행했다. 'Converting-02'의 준비물은 이전의 과정에서 제작된 촉매와 전사용 프레스, 지지체 패션의 기본인 티셔츠가 되겠다. 컨버터가 사용한 승화전사용 잉크는 프레스기로 열변형을 가하면 색상에 영향을 주는 안료만 지지체에 압착된 상태로 남고, 나머지는 수증기로 날아가 버린다. 즉 'Converting-01'에서

제작된 촉매는 ‘Converting-02’의 단계에서 최소한의 질량으로 티셔츠에 방법론과 지지체로서의 위계만을 부여하고 수증기로 날아간다. 이렇게 완성된 티셔츠는 패션산업의 속성과는 달리 매우 생산 효율이 낮은 방식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붓질을 수단으로 복각-변환된 회화작품을 머금은 특수용지는 오로지 단 한 번 열변형을 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제작된 티셔츠의 붓질을 ‘이미지’로 대하는 것이 「GRE」를 얼마나 경멸적으로 대하는 태도인지는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아무튼 이렇게 완성된 「GRE」의 ‘지지체 패션’을 입어보자. 그럼 착복한 사람의 육체는 회화 제작의 방법론 시점에 어떻게 멋지게 될까? 「GRE」: 프레임 인간을 위한 지지체 패션이라는 모호한 제목을 통해 짙막한 해설을 곁들이자면, 「GRE」가 만든 지지체 패션은 자신을 프레임으로 정체화하는 이에겐 근사한 패션으로, 그렇지 않은 인간에겐 지지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아무렴 인간의 수명보다 캔버스의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때론 그림이 인간보다 더 좋은 대우를 취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유명한 화면을 지탱하는 프레임이라 우겨보는 것은 꽤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 컨버터 황재민의 소견서를 첨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GRE: 프레임 인간을 위한 지지체 패션 컨버터 소견서

황재민

작가 지호인의 프로젝트 「GRE」에 컨버터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작품을 복각 대상으로 설정했다.

1.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다이어그램 17(Diagram 17). 1925.
Black ink on paper, 28.4 cm x 36 cm.
2. 로버트 마더웰(Robert Motherwell). 스페인 공화국에 바치는 애가 No.70(Elegy to the Spanish Republic No. 70). 1961. Oil on canvas, 175.3 x 289.6 cm.
3. 헬렌 프랑켄탈러(Helen Frankenthaler). 투티-프루티(Tutti-Fruitti). 1966.
Acrylic on canvas, 296 x 175 cm.
4. 도널드 저드(Donald Judd). 무제(Untitled). 1988. Woodcut print on paper, 61 x 81 cm.
5. 웨이드 가이튼(Wade Guyton). 무제(Untitled). 2008. Epson ultrachrome inkjet on linen, 214 x 176cm.

지호인은 2017년경 바실리 칸딘스키가 회화 언어의 체계화를 위하여 정립했던 점·선·면 이론을 차용, 비회화적 구성요소인 문자를 회화적 구성요소인 면으로 치환한 후 그 결과를 고찰하는 내용의 실험을 진행했다.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된 작가의 실험은 “프레임 인간을 위한 지지체 패션 브랜드”를 위한 프로젝트인 「GRE」로 발전했는데, 나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다이어그램 17」을 복각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결과물이 작가 지호인과의 협업을 기리는 기념물의 역할을 맡길 바랐다. 복각할 작품은 칸딘스키의 잉크 드로잉 중 러그나 머그컵 등, 인테리어 소품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을 찾아 선택했는데, 이 선택엔 특정한 역사적 사례가 상품의 형태로 복각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물화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투사되어있다.

로버트 마더웰의 「스페인 공화국에 바치는 애가 no. 70」와 헬렌 프랑켄탈리의 「투티-프루티」는 복각 과정에서 안료로 작용하는 잉크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선택이다. 각각의 작품은 잉크의 물성을 절묘하게 드러낸 화면이 특징으로, 해당 작품이 추구하고자 노력한 물성을 상품 차원에서 재현해내고자 희망했다.

웨이드 가이튼의 「무제」는 잉크젯 프린터와 프린터 잉크를 안료와 붓으로 삼아 제작된 메타-회화인데, 이것을 복각함으로 티셔츠 제작의 도구가 되는 전사 행위와 행위의 주체가 되는 승화 전사 프린터를 기념한다. 「무제」의 그리기는 프린터의 출력 행위에 상응되므로 시각적 엄밀함을 갖는 것이 특징인데, 잉크를 손으로 부려야만 하는 「GRE」 프로젝트의 특성상 이와 같은 엄밀함은 사라지나 따뜻한 인간적 손길이 그 빈 자리를 대신한다. 어쩌면 이는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물화 대상으로서 티셔츠의 상품성에 인간적 매체성을 투사, 티셔츠를 착용할 “프레임 인간”이 회화로 완전하게 승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할 지도 모른다.

도널드 저드의 「무제」를 복각하는 것은 ‘환영적 미니멀리스트’로 저평가된 도널드 저드의 작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환영적 미니멀리스트’로서 도널드 저드가 수행했던 스펙터클이 ‘물화’ 현상을 작업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은 현대 미술적 상품-실험에 재료로 적용되었을 때 그 양상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물화 될수록 작업의 개념적 적절성이 증대하며, 작업이 개념적으로 적절해질수록 일반적 형태의 물화와는 거리가 생기는, 이와 같은 모순적 구조는 판명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한 역사적 사례에 대해 희망적으로 재사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상과 같은 소견에는 어떠한 종류의 희망이 집적되어있다. 이는 “프레임 인간을 위한 지지체 패션”이 모종의 ‘회화적 구조체’로서 일시적으로 정상 작동하며 변화한 현대 미술의 미디어 기능을 재정체화 하는 일에 쓰이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컨버터’로서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GRE」 제품을 구매/구현하는 모델이 될 임의의 누군가 또한 「GRE」를 통해 구체화될 모종의 희망을 공감하며 함께하기를 바랐고, 이와 같은 소망을 담아 해당 소견서를 제출한다.



